

쉽터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조 윤 주

최 연 실[†]

상명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쉽터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체험하고 있는 임파워먼트 경험을 이해하고, 그 체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경기도 A 쉽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Giorg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쉽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현상학적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쉽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대한 81개의 의미단위 요약, 23개의 하위 구성요소, 7가지 구성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쉽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의 본질을 ‘주체적인 삶을 향한 기나긴 여정’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쉽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쉽터, 결혼이주여성, 임파워먼트 경험, 현상학적 연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연실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Tel: 02-2287-5317 / E-mail: yschoi@smu.ac.kr

서 론

결혼이주여성은 그 시작점인 결혼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사전 적응기간 없이 만남과 동시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으로 인하여 모국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며, 낯선 이주국의 문화와 언어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가족과 모국 등 문화적 지지체계에 대한 상실을 느끼며, 이주 이후의 식주와 생활방식의 차이, 성역할, 가족관계 등 문화와 의식의 차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경험을 하기도 한다(김성철, 2010). 그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적응으로 인한 부부갈등을 겪으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자괴심이 저하되기도 한다(노충래, 홍진주, 2006).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과 사회 양쪽에서 이중적인 차별을 당하는 인권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무시, 배제, 차별, 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인권 침해의 정도가 위험 수위에 놓여있으며, 때때로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인권 유린의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이인경, 2006; 김희숙, 2011). 특히, 쉼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남성이 가부장적인 태도로 결혼이주여성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남편 및 가족원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져 이주여성에게 구타, 학대와 같은 신체적 피해와 무기력, 상실감,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화순 외, 2008). 그리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반적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문화적 이질감, 언어소통의 한계, 편견과 차별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존중받지 못하고 고립되고 무시 받고 있다는 생각, 상실감과

충격으로 패배감까지 느끼고 있었다(전주희, 김병철, 2013).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적응, 갈등, 학대상태에 이르기까지 지지체계 상실, 무기력, 자괴심 저하, 자아상실,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누적시켜와 쉼터에 왔을 때에는 그 후유증이 최고에 달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위기에 부딪치면 이주여성 쉼터에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쉼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쉼터 퇴소 이후의 생활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거주지의 문제, 아동의 양육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과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협박, 소송 등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다(이지훈, 2014). 그러므로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내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임파워먼트를 통해 당면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능력을 키우고 삶의 주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임파워먼트는 어려움과 무기력에 처한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에게 용기를 주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신과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즉 힘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Pinderhughes, 1995).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정서적 감정은 자립성(self-sufficient),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아존중감(self-esteem) 등이 있고(Dunst, Trivette, & Deal, 1989; Reissman, 1965; Staples, 1990), 임파워먼트와 반대되는 감정은 무기력과 의존성 등이 있으며

(Deegan, 1992; Reissman, 1965), 임파워먼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사회작용이다(Rappaport, 1987; Staples, 1993).

임파워먼트 접근은 아동, 여성, 노인, 심신장애인, 다양한 문화권의 사회적 소수자 등 심리·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위축된 입장에 처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 유용하다(박선영, 2007; Guitierrez, GlenMaye, & DeLois, 1995). 임파워먼트는 자신과 환경에 대해 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개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편견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유발된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와 소외감속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안정선, 2006).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임파워먼트 접근은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위치에 대하여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그들이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고 강점들을 도출해 내도록 도와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정정임, 2008).

쉼터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대체로 우울감과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고(이효숙, 2009), 나아가 주관적 고통감과 불안감까지 표출하고 있었다(조연수, 2014). 쉼터에 거주하는 학대여성을 연구한 신은주(1994)는 그들에게 내재된 무력감을 평가하고, 피해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무력감을 해소하고 자기통제를 실현하게 도와주는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쉼터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학대로 인해 손상된 임파워먼트를 회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파워먼트와 관련되는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밝혀내고 이들을 원조하기 위한 개입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쉼터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그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해주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하고 유용하다. 질적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해 탐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민감한 주제나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경우,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고 그 삶에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효하기 때문이다(Padgett, 2001).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이 자신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연구대상의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중요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쉼터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생각,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와 해석 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실제적 삶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또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인간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참여자들의 개인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참여자 전체의 경험을 도출해낼 수 있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관한 본질적인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이 갖는 의미와 본질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상담 현장에서 그들의 경험적 특성에 기반을 둔 서비스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쉼터 지원체계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연구문제는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임파워먼트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방 법

현상학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는 연구현상의 특성, 유형, 구체적 맥락, 현상의 의미를 관찰하여 증거를 분석 및 해석하는 방법론이다(최영희, 1993). Denzin(1989)은 질적 연구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물을 연구하고 도출된 의미에 의해 현상을 이해하거나 시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질적 연구는 인간의 생생한 사실적 체험을 이해하고 추상적 언어로 표현하여 특정현상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며, 이를 통해 삶의 경험과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탈피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의미를 추구하고, 더불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그대로 기술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현상학적 방법, 근거이론적 방법, 문화기술지적 방법이 있는데, 현상학적 연구방법에는 Spiegelberg가 제안한 철학적 방법과 그로부터 파생된 Van Kaam, Colaizzi, Giorgi, Van Manen의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분한 외,

1999).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이 체험한 경험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여 그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기술적인 연구방법이므로,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고 경험의 의미를 포함한 현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Omery, 1983). 즉,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이 체험한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의식이 경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의 정확한 서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의 신념, 언어, 문화, 사회적 관습 등에 내재되어 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인간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 그 경험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신경림 외,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참여자에게 감정이입을 시도하고 연구참여자가 표현했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의 편견과 전문지식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음성자료와 필사본을 계속해서 새겨두고 읽으며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전체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가족상담학적 입장에서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연구자는 가능한 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예외적 사례들을 고찰해 보면서 이것이 연구 현상의 변치 않는 본질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가족상담학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Colaizzi 방법은 개인적 속성보다 전체 연구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내는 데 초점

을 두는 반면, Van Kaam의 방법은 의미 있는 진술보다 빈도와 순서를 찾아낼 수 있는 양적 특성을 가진다. Giorgi 방법은 상황적, 구조적 기술에서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김분한 외, 1999). Giorgi의 방법은 개인적인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적 임파워먼트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4단계, 즉 전체 인식 단계,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단계, 대상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 모든 변형된 의미 단위의 구조를 통합하는 단계를 적용하여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한 임파워먼트의 의미와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Miles와 Huberman이 제시한 의도적 표본추출전략 중에서 기준(criterion) 표본추출전략을 사용하였다. 기준 표본추출전략은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들을 참여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다(Creswell,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참여자는 쉼터에 거주하며, 최소 1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A 쉼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0명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분포의 경우 중국이 5명, 베트남이 3명, 필리핀이 1명, 몽골이 1명이었으며, 연령 분포의 경우 20대가 4명, 30대가 5명, 40대가 1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결혼과정은 소개와 중개가 동등한 비율이었고, 남편의 결혼유형은 초혼이 2명, 재혼이 8명으로 초혼보다 재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결혼기간은 3년에서 10년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살인미수와 같은 극단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가족상담 경험은 전무하며, 입소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이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참여자들인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임파워먼트에 대해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구성하기 위하여 고기숙(2010)과 신경림 외(2004)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참고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결혼 전 생활, 결혼이주를 하게 된 동기 및 배경, 초기 적응에서의 갈등과 어려움, 사회활동 경험 등을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며 질문을 하였고 참여자가 자유롭게 답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에게 질문하였고, 그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진실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참여자와 라포 및 신뢰 형성을 하여 참여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으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의 언어뿐 아니라 몸짓, 시선, 웃음, 울음, 억양 등 비언어적 메시지의 변화도 관찰 기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사용 능력에 있어서 개인마다 수준이 달랐으며,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명	나이	국적	자녀 수	학력	남편 직업	남편 결혼 유형	입소 기간 (개월)	결혼 지속 년수	결혼 과정	가족 상담 경험	폭력 및 정도
A	32	몽골	1	중졸	무직	재혼	4	5년	중개	무	언어, 정서, 신체폭력
B	30	중국	1	고졸	사업	초혼	3	3년	소개	무	언어, 신체폭력
C	29	베트남	1	고졸	장사	재혼	2	5년	소개	무	언어, 정서, 신체폭력
D	36	중국	3	고졸	회사원	초혼	6	10년	소개	무	언어, 정서, 신체폭력
E	27	베트남	1	중졸	장사	재혼	6	4년	중개	무	언어, 정서, 신체폭력
F	25	베트남	1	고졸	영업	재혼	5	4년	중개	무	언어, 정서, 신체폭력
G	38	중국	1	고졸	무직	재혼	4	6년	소개	무	언어, 신체폭력
H	25	중국	0	중졸	요리사	재혼	9	3년	중개	무	정서, 신체폭력
I	30	중국	1	고졸	영업	재혼	6	7년	중개	무	신체폭력, 살인미수
J	47	필리핀	0	초졸	무직	재혼	3	7년	중개	무	언어, 정서, 신체폭력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벗어나는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상세히 표현하기 어려운 참여자도 있었다. 그래서 한국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통역의 도움을 받아 면접을 실시하였다. 통역의 도움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역과 의미 전달에 있어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질문과 파생질문을 활용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참여자의 표정과 몸짓, 말투 등을 기록하여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은 쉼터의 회의실에서 주로 진행되었

으며, 1회 면접시간은 한 번에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은 예비연구 시에는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상황에 대한 별도의 기술을 더하여 중요한 내용,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분위기 등의 자세한 상황은 일지 형태로 기록을 남겼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층면

접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임파워먼트 현상들을 학문적인 용어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여 내면의 세밀한 감정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의 진술을 연구자가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자료를 일반화하고 잠재된 함축적 내용을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4단계로 진행된다(Giorgi, 1985). 첫째 단계는 ‘전체 인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심층면접 내용에 대한 필사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필사는 연구참여자와의 면접에서 발생하는 대화를 재생하는 과정이므로 연구자 스스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Giorgi의 권고에 따랐다(Giorgi & Giorgi, 2003). 두 번째 단계는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참여자들의 말로 표현된 진술문을 구분하는 과정이다(신경림 외, 2004). 참여자들 각각의 진술로부터 전체적인 인식을 얻은 다음, 연구자는 참여자의 진술문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상담학적 입장에서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단위(meaning unit)를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의미단위에 고유번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10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81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했다. 임파워먼트 경험에 중점을 두고 참여자별 의미단위를 구분하였고, 그 후에는 분류된 모든 의미단위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대상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분해 놓은 의미단위를 서로 대조하며 관련성을 찾고, 반성과 자유로운 상상적 변형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

는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였다(신경림 외, 2004). 자료를 일반화하고, 잠재되고 함축된 내용을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며, 학문적 시각에서의 의미를 도출하고 구분해내기 위해 연구자는 전형과정을 거쳤다(Giorgi & Giorgi, 2003). 본 연구에서는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임파워먼트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의 일상적인 표현을 가족상담학에 적합한 학문적 언어로 전형하였다. 그러나 합의된 학문적 용어가 없을 경우에는 Giorgi의 제안대로 현상학적 관점에서 상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즉, 의미단위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관련성을 찾아낸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모든 변형된 의미단위의 구조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문적 용어로 전형된 의미단위들로부터 구성 요소들을 도출해내었고, 여러 구성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찾기 위해 ‘자유변경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윤리성 및 엄격성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보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 참여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Weiss, 1994),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하고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연구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전에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였고, 참여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또 연구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략

적인 면담 횟수 및 소요시간, 연구참여에 따르는 위험 및 혜택을 알려주었으며, 수집한 자료를 본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급된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만을 연구에 참여시켰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모든 질적 연구의 필수 조건이다. 서면동의나 구두동의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고려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서면동의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참여동의서’를 제공하였다.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연구내용과 면접내용에 대한 녹음, 작품을 사진 찍는 것과 익명으로 기록되는 것에 대한 동의, 면접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 연구참여자가 원하면 연구진행 중이라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연구가 끝난 후 녹음 내용과 기록물은 폐기할 것이라는 점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만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담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메모하였다. 본 연구자는 전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들을 가명으로 처리하였고,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이름 대신 파일의 번호를 붙이는 등 코드번호로만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쉽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차별, 폭력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면담을 통해 드러나고 노출될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Padgett, 1998), 연구자의 자질과 역량 등이 질적 연구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경험 및 가

치와 신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료를 수집하기 전과 연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구자의 배경이나 경력도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axwell, 1996).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선경험들에 대한 ‘괄호치기(bracketing: 판단중지)’를 통해 선입견을 배제하고 최대한 연구참여자의 경험 그대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연구주제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 선이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여성과 다른 임파워먼트 경험을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국과 다른 한국의 의식주와 생활방식의 차이, 성역할, 가족관계 등 문화와 의식의 차이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가족들과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져 쉽터에 입소하였을 것이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은 폭력으로 인하여 임파워먼트에 손상을 입을 것이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임파워먼트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심층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해석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가 연구문제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론의 탐색과 연구방법과 구조, 자료의 구조화 및 해석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의 개인적 주관성이 강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가족상담학 박사들과 박사과정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연구문제와 추출된 자료의 분석에서 주제별로 범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삼각검증과정(triangulation)’을 거쳤다. 이러한 삼각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이 연구의 논리성과 취약성에 대비하였다.

또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Padgett(1998)가 제시한 삼각검증과정,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 동료 집단의 조언 및 지지, 감사추적자료 남기기의 5가지 기준에 따라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김상숙, 2013).

결 과

Giorgi가 제시한 4단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학문적 용어로 변환된 472개의 의미단위들을 동일한 의미끼리 묶어서 81개의 의미단위요약을 도출하였고, 다음 단계에서 도출된 의미단

위 요약들의 보다 상위 개념인 23개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 구성요소들을 묶어 최종적으로 7개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7개의 구성요소는 구체적으로 “경제적 학대”, “과도한 속박”, “가족으로 불인정”, “남편의 폭력”, “변화에 대한 노력”, “무기력에 빠짐”, “자립에 대한 의지” 등이다.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의 요약은 표 2와 같다.

경제적 학대

노동력을 착취당함

한 참여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월급을 고스란히 시부모 명의의 적금통장에 넣고 있으면서 용돈조

표 2.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의 요약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
경제적 학대	노동력을 착취당함	월급을 뺏어 남편이 다 써버림 돈 벌어 오는 노예 취급을 당함 자신의 월급으로 시부모 명의의 적금 불입함 시부모가 모든 통장을 관리함
	경제적인 통제를 받음	생활비를 포함하여 아무런 돈도 안줌 현금을 주지 않고 카드만 줌 일일이 카드 사용처를 확인하고 간섭함 남편이 허락하는 물건만 구입하게 함
	경제적인 책임을 떠안음	나 혼자 돈 벌어서 애기를 키움 애기가 먹을 우유도 안 사줌 남편이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일을 안함 술 먹는 데 돈을 다 쓰고 애기 병원비 안줌
과도한 간섭	사회로부터 고립 당함	친정에 못 가게 함 동향 사람에게 대한 접촉조차 못하게 함 친구와의 전화통화도 간섭함 친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함
	의심으로 인해 지나치게 간섭함	어디를 가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확인함 돈을 빼돌려 친정에 주는지 의심함 믿지 못해 사사건건 간섭함
	남편 취향을 강요당함	남편이 좋아하는 취향의 옷만 사줌 편한 옷 대신 남편이 원하는 정장마지를 사줌

표 2.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의 요약

(계속 1)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
가족으로 불인정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함	결혼식도 올려주지 않음 재혼 사실과 부양가족을 속이고 결혼함 호적에 올려주지 않음 친정 식구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함
	하인 취급을 당함	밥하고 애들 보는 가정부 취급을 함 결혼 해줬으니 돈 벌어 오라고 강요함
	경제적으로 소외당함	돈을 쓸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함 교통비도 아까우니 집에만 있으라고 함 결혼 후에도 옷이나 예물을 전혀 안 사줌 내 이름으로 적급에 가입하지 못하게 함
남편의 폭력	장난을 가장한 폭력	남편이 때린 것을 장난으로 치부함
	성적 학대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함 매일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함
	정서적 폭력	남편이 얼굴에 침을 뱉음 여러 번 뺨을 맞아 수치스러움 친정을 사기꾼, 거지 취급하고 멸시함 다른 여자와 비교하며 촌스럽다고 무시함 엄마와 함께 집밖으로 쫓아 냄 집 밖으로 쫓겨나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림 내 모국을 무시하고 돈밖에 모른다고 화냄
	언어적 폭력	평생 들었던 욕보다 1년간 들은 욕이 더 많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온갖 욕을 함 매일 욕하고 사람취급 안하고 무시함 욕을 했으면서 욕이라고 인정을 안 함
변화에 대한 노력	수동적으로 노력함	때리면서 칼로 죽인다고 함 귀에 피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들 칼을 들고 죽인다고 위협함 자동차 옆쇠로 찍음 허리띠, 칼, 망치로 때리고 젓가락으로 쑤심 상처 내고 불 지르고 물 뿌리고 칼로 죽이려 함
		참아 넘기며 더 이상 얘기를 안 함 참고 또 참으며 많이 빌어서 상황을 넘김 때리고 욕해도 10년을 견뎌 옴 참고 참다 점점 성격이 어둡게 변함
	능동적으로 노력함	신앙의 힘으로 용기내서 도망쳐 나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옴 싸우다 경찰의 도움으로 탈출함

표 2.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의 요약

(계속 2)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
무기력에 빠짐	폭력이 반복됨	여러 번의 폭력에도 남편이 먼저 사과하지 않음 때리고 각서 쓴 후 또 술 먹고 때리기 반복함 허리띠, 망치, 칼, 젓가락 등으로 때리기 반복 불, 물, 칼 등 여러 수단으로 괴롭힘 반복
	적절한 대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경찰에 신고할 줄 몰라 10년을 견뎌 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참고 견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	폭력과 용서의 반복으로 인해 지치고 후회됨 폭력에 순응하고 그냥 포기함 남편으로 인해 꿈을 잃어 슬프고 속상함
	우울증과 자살충동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남편 옆에 있으면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음 교회에서 설교 중 뛰어내리라는 환청을 들음
자립에 대한 의지	자녀를 위하여 환경을 극복하려 함	방금 밥 먹은 애들에게 강제로 다시 밥을 먹임 애들에게 크게 소리치고 때림 나쁜 영향을 줄까봐 애들을 같이 데리고 나옴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함
	쉼터에서 독립하고자 함	남편에게 쫓겨나 두 번 쉼터에 옴 쉼터에서 지원을 받고 일시적 휴식을 취함 쉼터에서 독립하여 빨리 돈을 벌고 싶음
	한국에서 뿌리내리고자 함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 한국에 살고 싶음 이혼 당한 채 모국으로 돌아가기는 억울함 한국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음 한국이 좋아 한국에서 살고 싶음

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 한 참여자는 참여자의 월급을 남편이 강제로 빼앗아서 다 써버리고 돈 벌어 오는 노예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다녔는데 월급을 시어머니에게 다 주더라구요. ... 시어머니가 원래 항상 통장을 다 갖고 있어요. (참여자 H)

하인처럼 그렇게 ... 그냥 벌어들이면 다 자기가 써버리고 그랬어요. ... 결혼했으니까 너는 그냥 돈만 벌어서 내놔라. (참여자 J)

경제적인 통제를 받음

경제적 주도권을 남편이 움켜쥐고 현금 대신 카드를 주어 일일이 사용처를 확인하고 사소한 금액의 물건 구입까지도 모두 허락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재산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심지어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참여자에게는 전혀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원래 우리 애기 아빠는 우리한테 아무 용돈도 안주고 아무 돈도 안줘요. (참여자 A)

카드만 줄뿐이지 현금도 안주고 의심이 많

고, ... 항상 빼돌릴 수 있다는 ... 카드로 끊으면 뭘 또 샀냐고 바로 문자가 와요. 1분도 안돼서 ... 왜 자기 동의도 없이 사냐고. (참여자 B)

경제적인 책임을 전가함

참여자들 중에는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경제적 책임을 참여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권위의식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좋게 하고 싶은데 집 안에서 자꾸 술 먹고 돈을 팍팍 쓰잖아요. 애기 병원비도 없어요. (참여자 D)

가정생활은 제가 오자마자 한 달에 40만원, 또 60만원 그런 식으로 벌고, ... 남편이 그때부터 더 일 안 나가고 집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컴퓨터하고 새벽에 두시 세시까지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참여자 I)

과도한 간섭

사회로부터 고립됨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남편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하여 활동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고국과의 단절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친정, 친구 심지어는 같은 모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접촉을 거부당하기도 하였으며, 10년 동안 한 번도 친구모임에 참여해 보지 못한 참여자도 있었다.

친정을 못 가게 해요. 중국 사람에 대한 접촉도 싫어해요. ... 친구랑 전화통화 할 때도 ... 뭐라 하고, 빨리 끊으라고,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고 그러면서 ... 진짜 자존심 많이 상해요. (참여자 B)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친구 모임에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남편이 애 두고 어딜 가냐고 ... (참여자 C)

의심으로 인해 지나치게 간섭함

참여자의 남편들 중에는 친정식구뿐만 아니라 동향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고, 심각한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국의 친정집에 남편이 버는 돈을 몰래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심도 심해요. 제가 어디를 나가도 ... 친구를 만났을 때도 신랑이 바꾸라 그래서 친구 언니까지 바꿔준 적도 있어요. ... 내 돈을 어디다 쓰냐? 나 몰래 친정에 가져다 주냐? 카드만 줄뿐 현금도 안주고, 항상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 (참여자 B)

부부 사이에 서로 안 믿어요. 왜 제가 돈을 고향에 다 보내려고 하겠어요? (참여자 D)

남편 취향을 강요함

한 참여자는 마치 인형처럼 남편의 취향에 맞는 의상과 스타일을 강요받기도 하였다. 참여자의 의사는 전혀 존중 받지 못하였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자로서의 참여자의 역할이 남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었다.

일일이 간섭하고 제가 옷을 사는 것까지도 그래요. 신랑은 ... 구두도 신고 다니고, 치마도 입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다녀야 되고 ... 근데 저는 그거 안 입어요. (참여자 B)

지난번에도 치마 입어봤는데 안 샀어요. 정장마지 같은 거, 남편이 사고 싶은 거 샀어요.

(참여자 H)

가족으로 불인정

아내로서 인정하지 않음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고도 올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혼 사실과 부양가족 등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할 인적 사항도 거짓말하여 결혼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친정엄마나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여 기분이 상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상실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혼식도 안 올려 주고, 제 호적도 없고 ... 그 사람은 재혼, 제가 3번째 와이프. 근데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 (참여자 D)

남편이 친정엄마를 존중하지 않고 어른들한테도 함부로 하고 ... (참여자 G)

하인 취급을 당함

참여자들은 남편과 시댁에게 가족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랑이 그래요. 나는 돈을 벌어서 주니까 너는 집안일만 해야 한다. ... 하인이예요. 밥 해주고 애들 봐주고 ... 가정부예요. 완전. ... (참여자 B)

하인처럼 그렇게 ... 그냥 벌어들이면 다 자기가 써버리고 그랬어요. ... 결혼했으니까 너는 그냥 돈만 벌어서 내나라. (참여자 J)

경제적으로 소외당함

참여자의 남편이나 가족들은 경제적인 고립을 통해 참여자들이 소외감을 들게 만들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였다. 교통비나 옷 같은 사소한 돈도 쓰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낮은 인간이라는 인식을 유도하였고, 재산의 관리에서도 배제 시켜 같은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너 같은 가치 없는 애한테 돈을 쓸 만큼 여유가 없대나, 쓰고 싶지 않다고 ... 신랑이 그러면서 너는 집에 있는 게 자기를 도와주는 거라고, 밖에 나가면 전철비라든가 교통비라도 쓰잖아요. (참여자 B)

임신했을 때 내 이름으로 적금하려 했는데, 어머니가 안 돼. 자기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참여자 H)

남편의 폭력

장난을 가장한 폭력

한 참여자의 남편은 분노조절을 잘못하고 폭력을 장난으로 치부하며 경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때린 게 때린 거냐고. 장난으로 한 거라고. ... 어이가 없어서 ... (참여자 B)

성적 학대

참여자의 남편 중에는 성적인 부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편의 강압적인 성관계를 힘들어 하고 변태적인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드러나듯이 참여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면 무조건 성관계를 매일 가져야 되나요? ... 이렇게 내가 싫은데 ... 싫은 걸 왜 강요 하냐고 ... 내가 좀 거부를 하고 싫은 티를 냈거든요. ... 그러니까 못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구요. (참여자 C)

제일 힘들게 했던 부분이 남편이 성관계를 할 때 너무 더러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주겠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 (참여자 G)

정서적 폭력

대부분의 참여자는 수치심과 모멸감 등을 느끼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경험하였다. 심지어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신이 가장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될 경우는 남편과 다툼이 있을 때 남편으로부터 '집 나가', '너희 나라로 가라'는 말을 들을 경우였다.

지난번에 저한테 침을 얼굴에 (울먹이면서) 뱉은 거예요. ... 그게 지금도 치욕적이에요. ... 항상 저희 집 애기를 할 때 사기꾼 집안이고, 거지같은 집안이고 ... (참여자 B)

싸우면 나가, 나가, 그게 너무 듣기 싫고 힘들었고 ... 한번은 싸움을 했는데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문 닫고 서서 있었어요. 한 3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남편은 찾지도 않고 ... (참여자 G)

언어적 폭력

대부분의 참여자는 남편에게 욕과 폭언 등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반복적인 폭언으로 인하여 참여자들은 심각한 수치심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었다. 어떤 남편들은 참여자들이 한국어가 취약한 것을 약점 잡아서 욕을 하고도 나쁜 말올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항상 싸울 때 폭언... 쌍 년, 미친 년, 정신 병자 같은 게, 제 정신이 아니다, 개 같은 년 ... 그게 진짜 지금도 잊을 수 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 B)

저 학교 다닐 때도 욕을 그렇게 먹어보질 못했고, 사회 나와서도 그렇고, 친구들과하고 크게 폭언하고 싸운 적도 없어요. 저 솔직히 30년 동안 겪었을 일들을 신랑한테 한 번에 다 겪은 거예요. (참여자 I)

신체적 폭력

참여자들은 대부분 과도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띠와 망치로 때리고 젓가락과 심지어는 칼로 찌른 경우도 있었다. 특별한 이유나 계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살인의 위협에 시달린 경우까지 있었다.

허리띠도 들고 때리고, 젓가락 갖고도 이렇게 찌르고, 칼도 수 없이 들고, 망치도 수 없이 들고, 그날도 젓가락 들고 쏘시면 들어가요. (참여자 C)

근데 그 사람이 때려요. 저한테 상처 내고, 돈 달라고 하고, 불 지르고, 온몸에 물 뿌리고, 칼 갖고 죽이려고 하고 ... (참여자 I)

변화에 대한 노력

수동적으로 노력함

참여자들은 폭력의 발단이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상황에서 발생하였지만, 반복되는 폭력 속에서 초창기에는 스스로 인내하거나 적응하고 남편에게 지적 받을 일들을 숨기는 등의 수동적인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가 한 마디만 더하면 싸움이 크게 벌어지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자. ... 그냥 이 상황만 피하자. (참여자 B)

한 달, 한 달 하면서 많이 참았나 봐요. 서로 성격 안 맞으니까 예쁘게 말도 못했죠. 어둡게, 성격 어둡게 ... 얘기 보고 살려고 참고 또 참고 ... (참여자 D)

능동적으로 노력함

반복된 폭력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거나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자원이 고갈 되었을 때 참여자들은 가출이나 신고를 통해 남편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신앙에 의지하여 극복해 보려는 참여자도 있었고, 폭력과 경제적 갈취에 지쳐 도망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이 와서 경찰이 119에 신고를 해서 소방대까지 왔다갔어요. 제가 뛰어내릴까봐. ... 긴급 피난소와 1366에 갔다가 여기로 왔어요. (참여자 B)

내가 한 번도 경찰이 와도 신고 할 줄 몰랐어요. ... 근데 교회 다니면서 모든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 내가 몰라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거기서 터득했거든요. ... 그래서 제가 집을 나왔어요. 도망갔어요. ... 1366 전문 상담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참여자 C)

무기력에 빠짐

폭력이 반복됨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폭력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또 때리면서 너 왜 그랬어. 맨 날 따지면서. ... 허리띠도 들고 때리고, 젓가락 갖고도 이렇게 찌르고, 칼도 수 없이 들고, 망치도 수 없이 들고 ... (참여자 C)

한국에 왔을 때 계속 싸웠어요. ...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각서도 썼고요. ... 또 한 달 안 되서 남편이 술 많이 마시고 각서도 가져다 버렸어요. 술 많이 마시고 ... 또 이혼 얘기 해요. (참여자 E)

적절한 대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한 참여자는 10년 동안의 반복된 폭력 과정에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애 아빠와 같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 생각하면 그때 지금까지도 그냥 도와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동안 혼자 참고 또 참고, 다시 생각하면 진짜 ... (참여자 A)

나를 때리고 욕하고 해도 그 10 몇 년을 참아왔던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찰이 와도 신고도 할 줄 몰랐어요. (참여자 C)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

대부분의 참여자는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으며 무조건적으로 참다가 결국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러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와 피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호소하였는데, 남편은 의지되고 힘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과 공포를 주는 존재였다.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폭력에 대처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참기만 하였고 어느 순간

폭력에 순응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었다.

본인이 속상한 거예요. 저를 막 때리더라구요. 머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 그러던 한 순간에 그냥 포기했어요. ... (참여자 C)

술 안 먹으면 착해요. 다음 날 술 먹어서 미안하다고 많이 했어요. ... 많이 용서하고 기대했는데 이제 다 지쳤어요. 많이 후회하고. ... (참여자 D)

우울증과 자살충동

반복적인 실패경험으로 인하여 점점 무력감이 고조되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 참여자는 자신과 미래에 대한 통제시도를 포기하기에 이르며, 결국 고립과 위축 상태에 접어들어 우울증과 자해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우울감을 스스로 추스르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라는 환청을 겪기도 했으며, 죽고 싶은 충동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저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저는 항상 혼자서 자제를 많이 하거든요. ...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여자 B)

교회 나가 너무 슬퍼서 2층에 앉아 설교 듣고 있는데 누가 자꾸 뛰어내리래요. ... 근데 이건 아냐, 이런 마음은 나쁜 거야. ... 힘줘서 계속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참여자 C)

자립에 대한 의지

자녀를 위하여 환경을 극복하려 함

참여자의 남편들은 자녀들의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환경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가출을 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꼭 이혼해야죠. 아이를 위해서. ... 이런 아빠 있으면 아마 다른 생각 할 수 없을 거예요. (참여자 A)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영향이 아이들한테 가요.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분명 큰 상처들 다 있어요. (참여자 C)

쉼터에서 독립하고자 함

참여자들은 대부분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쉼터에서 피신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쉼터는 참여자들에게 잠시의 피난처는 될지언정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단지 잠시의 심리적 안정과 지지가 될 뿐이다. 참여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역정에서 잠시 몸을 추스르고 있었지만, 후회와 무력감 속에서 불안하고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기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어서 편해요. ... 빨리 나가서 돈 벌고 싶어요. (참여자 C)

한국은 나라에서 복지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고 노력해서 잘 살고 싶어요. (참여자 G)

한국에서 뿌리내리고자 함

쉼터는 현실적으로 생활을 어떻게 할지, 아이를 어찌 키워야 할지, 이혼 후 양육권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쉼터에서 자립에 대한 의지를 일으키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소망한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자녀를 위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고,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였다.

예쁜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기 교육도 좋아요. 한국을 첫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 앞으로 최선을 다해 배워서 나처럼 힘들었던 여자를 도와주고 싶어요. (참여자 C)

한국에서 살 거예요 죽는 날까지. ... 자식 때문에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참여자 D)

논 의

일반적 구조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이해하고 탐색하여 그 일반적 구조를 밝혀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에서 의미단위와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손상된 임파워먼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손상된 임파워먼트를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주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표 3은 본 연구의 핵심인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임파워먼트 경험의 구성요소 및 하위 구성요소와 이를 통해 도출된 임파워먼트 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결혼의 시작을 중개업소에 소개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경제적 예측 상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그들을 배우자와 동등한 위치에 놓아두지 않고 결혼생활 내내 정당한 대우

를 받지 못하고 억압받고 감시받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소외를 당하고 통제를 받으며 나아가 한국식 생활방식과 고국과의 단절을 강요받고 활동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었다. 결혼 초기에 이러한 경험을 하며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부당하고 과도한 억압과 통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면서 거부하지만 수용되지 못하고 갈등의 양상이 표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이 깊어지면서 폭력이 수반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자기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무기력이 발생하는 것이다(Schneider, 1990; Seligman, 1975). 이와 같이 무기력에 빠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폭력의 피해가 목숨을 위협하거나 자녀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피신하여 쉼터에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쉼터에 왔을 때 그들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사회성에 상처를 입었으며, 문제에 대응할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 전체가 손상되어 있었다.

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에게 지지체계가 되어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 문제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도 하여, 조금씩 손상된 임파워먼트를 회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통계집단 임파워먼트 통계분석 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표 3. 본 연구의 구성요소 및 하위 구성요소와 도출된 임파워먼트 요인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임파워먼트 요인
경제적 학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경제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책임까지 떠안고 있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자아존중감이 손상되었고, 상황에 대한 통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여 자기효능감이 저하되었으며, 자율성을 통제받아 사회성이 약화됨
과도한 간섭	사회로부터 고립 당하고, 남편이 의심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며, 남편의 취향을 강요당함	친정, 친구, 동향 사람을 못 만나게 하여 사회성에 손상을 입었고, 지나친 간섭으로 자율성을 통제 받아 사회성이 더욱 약화되었으며, 의심을 통해 자신이 유용하고 중요하다는 가치를 부정당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저하됨
가족으로 불인정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인 취급을 당하며, 경제적으로도 소외당함	존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해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받았고, 무시와 소외를 통해 가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상실하여 무기력에 빠짐
남편의 폭력	성적 학대와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함	폭언과 폭력 등의 학대를 통해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정당하여 자아존중감이 손상되었고,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음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저하되었으며, 폭력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상황과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여 무기력에 빠짐
변화에 대한 노력	수동적, 능동적으로 노력함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함에 따라 소극적으로 참고 견디는 등의 대응만 하면서 무기력이 깊어지고,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가출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기대해 봄
무기력에 빠짐	반복된 폭력과 대처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	남편의 반복된 폭력으로 인하여 자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함에 따라 무기력이 학습되어지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념을 잃게 됨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가져옴
자립에 대한 의지	자녀를 위하여 환경을 극복하려 쉼터로 피신하였으며, 쉼터에서 자립하여 한국에서 뿌리내리고자 함	남편이 자녀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자녀를 동반하여 쉼터에 입소함으로써 목표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신념이자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관측되었음. 또한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자각하여 무기력에서 벗어나 파위를 획득하고자 염원하며, 한국에서 살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돕기를 희망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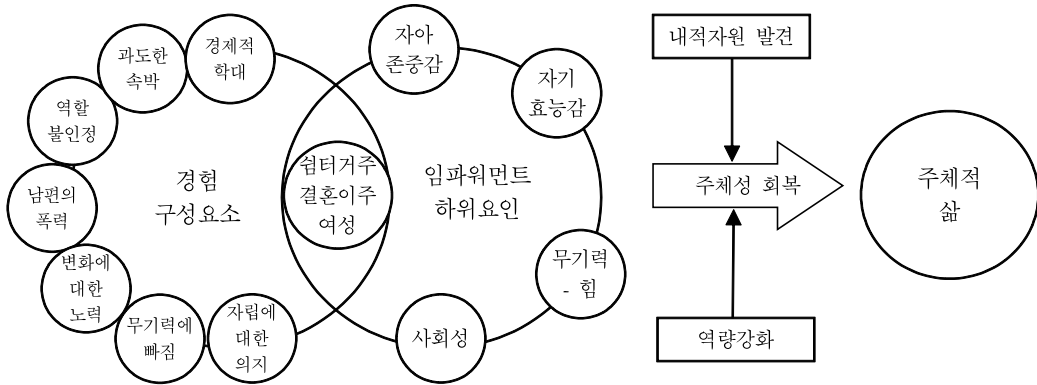


그림 1.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과정

같이 임파워먼트의 회복은 일부인원에게 일시적으로 생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시적으로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경제문제, 이혼문제, 자녀문제 등을 마주하면 다시 예전의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일부는 여전히 무기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임파워먼트의 본질을 압축해서 하나의 일반적 구조로 정리해 보면 이는 ‘주체적인 삶을 향한 기나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상실한 주체성을 회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고자 하였고, 온전히 자신의 판단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속에서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최종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는 주체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일반적 구조와 중심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이 체험한 임파워먼트 경험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쉼터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 등 가족관계 속에서 동반자, 아내, 며느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

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구타, 학대와 같은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무기력, 상실감,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화순 외, 2008).

결혼이주여성들은 특히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남편에게 경제적 권한을 아예 박탈당하거나 착취당하거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차단당하고 심지어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주여성들은 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파출부나 하인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은 남편이나 시댁으로부터 활동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받고 고국과의 단절을 요구받는 등 간섭을 넘어선 과도한 속박을 받고 있었다.

둘째, 쉼터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남편들은 음주, 폭력, 중독과 같은 심리내적인 문제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심각한 음주문제와 음주로 인한 폭력 등의 문제가 있었고, 분노 조절을 잘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성행위 강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이들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폭언

과 욕설을 통한 언어적 폭력과 비인격적 대우를 통한 정서적 폭력, 그리고 직접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셋째, 쉼터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으며 무조건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았다. 반복적인 실패경험으로 인하여 점점 무력감이 고조되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 참여자는 자신과 미래에 대한 통제시도를 포기하기에 이르며, 결국 고립과 위축 상태에 접어들어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양옥경과 김연수(2007)의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우울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집단에서 가정폭력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양철호 외(2003)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학대에 대해 피해여성들의 64%가 ‘그냥 참는다’, 26%가 ‘가출한다’고 답을 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나 여성단체 등에 도움을 청한 경우는 9%에 그친 것과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은 매우 취약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쉼터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한 폭력의 피해는 본인에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의 피해는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참여자들은 결혼 자체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다. 참여자의 남편들은 자녀들의 앞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러한 환경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가출을 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쉼터는 참여자들에게 잠시의 피난처는 될 뿐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잠시의 심리적 안정과 지지가 될 뿐이다.

다섯째, 쉼터는 현실적으로 생활을 어떻게 할지, 아이를 어찌 키워야 할지, 이혼 후 양육권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쉼터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쉼터에서 안정을 되찾았지만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환경을 극복하고 자립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 그들은 자신이 이혼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면 받게 되는 이혼녀 등의 사회적 낙인, 자녀에 대한 그리움 등의 문제 때문에 모국보다 사회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서 또 다른 인생을 꿈꾸며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인 쉼터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임파워먼트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한 임파워먼트의 손상은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무기력-힘, 사회성의 모두에서 나타났다. 그 중 무기력-힘의 영역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났는데, 무기력은 과제수행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수동성과 우울의 부정적 심리를 강화하며, 기대와 행동을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 질적 분석의 결과 도출된 7개의 구성요소 “경제적 학대”, “과도한 속박”, “역할 불인정”, “남편의 폭력”, “변화에 대한 노력”, “무기력에 빠짐”, “자립에 대한 의지” 모두가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회복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이러한 측면들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그들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쉼터에 입소하기는 했지만 적게는 2년에서부터 많게는 10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폭력 속에서도 곳곳이 참으며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7개의 구성요소 중에서 “자립에 대한 의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들 중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자녀와 동반으로 쉼터에 입소하고 이혼을 결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그들은 쉼터를 나간 후에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관계에서 최우선 고려대상이 자녀라는 것을 알려준다.

셋째,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의 폭력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았고 반복적인 폭력에 대한 대응 실패경험으로 인하여 점점 무기력이 고조되어 상황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고립과 위축의 상태에 빠져들어가다가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쉼터에서 잠시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얻기도 하지만, 그들에 대한 학대와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와 후유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방안이 필요하며, 나아가 부부갈등과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가족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 간의 갈등은 결혼 초기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결혼 초기 이주여성들의 가족 내 부부 교육 프로그램이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에게 부부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간 갈등조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부부 의사소

통 훈련 프로그램, 한국인 배우자에게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자녀양육 상담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또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결혼이주여성에게 대처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의사소통기술과 학습이나 역할연습을 통해 폭력을 당한 결혼이주여성이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폭력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복지기관, 경찰, 쉼터 등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인 자녀에 대한 신변 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도 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의 분석결과에서도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임파워먼트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고, 일부는 아버지의 폭력 습관을 학습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자녀에게 발생한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전가되어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보고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가정폭력을 경험한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보장과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 과정과 배경에 대한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연구대상도 A 쉼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로 한정되어 있다. 쉼터라는 장소의 특성상 1개소만 선택하여 연

구를 진행하기에는 연구대상의 수가 적고 거주인이 한정되어 동일집단 구성이 힘들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여러 개의 쉽타와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입소했다가 퇴소한 결혼이주여성들도 함께 연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폭을 넓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기숙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18(1), 229-259.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김상숙 (2013).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체험: Parse의 연구방법론 적용.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성철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김희숙 (2011).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탐색: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박선영 (2007).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초기 임파워먼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6(1), 173-192.
- 변화순, 이미정, 김혜영, 황정미, 이선행 (2008).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은주 (1994).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안정선 (2006).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동료관계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 양철호, 김명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이인경 (2006). 상담사례를 통해 본 이주여성의 삶: 어울림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18, 5-22.
- 이정숙 (1995).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체험: Parse의 연구방법론 적용.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지훈 (2014). 이혼·별거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이주여성 보호쉼터 입소경험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이효숙 (2009). 쉼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전주희, 김병철 (2013). 결혼이주여성의 감정표현 불능 감소에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한*

- 국예술치료학회지, 13(2), 95-114.
- 정정임 (2008). 사회적지지가 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조연수 (2014). 심리적 외상 후 심터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집단미술치료 효과. 아동가족치료연구, 12, 105-122.
- 최영희 (1993). 질적간호연구, 서울: 수문사.
- Allender, Dan B. (1995). *The wounded heart*. Colorado Springs, Colo: NavPress.
- Creswell, J. W. (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정선옥, 김진숙, 조홍식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5에 출판).
- Deegan, P. (1992). 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and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aking back control over own Live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5(3), 3-19.
- Denzin, Norman K. (1989). *Interpretive biography*. Newbury Park, CA: Sage.
- Dunst, Carl J., Trivette, Carol M., & Deal, Angela G. (1989). *Enabling and empowering families: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practice*. New York: Brookline Books.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iorgi, A., & Giorgi, B. (2003). Phenomenology. In J. A. Smith(Ed.), *Qualitative psychology: A practical guide to research methods*(pp. 25-50). London: SAGE Publication.
- Gutierrez, L., GlenMaye, L., & DeLois, K. (1995). The organizational context of empowerment practic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administration. *Social Work*, 40, 249-258.
- Maxwell, J. A.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3.
- Padgett, D.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유태균 역). 서울: 나남(원전은 1998에 출판).
- Pinderhughes, E. B. (1995). Empowerment diverse population: Family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Families in Society, March*, 131-140.
- Rappaport, J. (1987). Terms of empowerment/exemplars of prevention: Toward a theory for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569-579.
- Reissman, F. (1965). The helper therapy principle. *Journal of Social Work*, 10, 27-31.
- Rodger, B. L., & Cowles, K. V. (1993). Qualitative research audit trail: A complex collection of documentation.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6, 219-226.
- Schneider, E. M. (1990). Violence of privacy. *The Connecticut Law Review*, 23, 973-999.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Freeman.
- Staples, L. (1990). Powerful ideas about empowerment.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4(2), 29-42.
- Staples, W. D. (1993). *Think like a winner*. Chatsworth: Wilshire Book Company.
- Weiss, R. S. (1994). *Learning from strangers: The art and method of qualitative interview studies*. New York: The Free Press.
- 원고 접수일 : 2016. 02. 15.
게재 결정일 : 2016. 03. 3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mpowerment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Staying in Shelter

Cho, Yun-Joo

Choi, Youn-Shil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meanings and nature of the empowerment experi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staying in shelter. Data were collected from 10 married immigrant women staying in shelter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An in-depth interview was held individually with the question, "What is the nature of the empowerment experi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staying in shelter?"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e phenomenological Giorgi's method. The data were analyzed into 81 meaning units, 23 sub-constituents, 7 constituents. Based on this experience, this study summarized the essence of the empower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staying in shelter as 'a long journey to subjective lif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basis for the counseling interven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staying in shelter.

Key words : shelter, married immigrant women, empowerment experience, phenomenological study